

# 가족배경이 학령 전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

김 광 혁(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I. 서론

아동기의 신체적 학대 경험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적응과 교육적 성취에 이르기까지 아동발달과정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 영향에 그치지 않고,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Knutson, 1995; English, 1998; Cynthia, 2002). 이렇듯 아동학대가 아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사건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서구에서는 학대가 발생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서구의 연구들은 아동학대를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부모와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 그리고 가족의 소득이나 빈곤, 가족구조 등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Belsky, 1980; Knutson, 1995; English, 1998; Plotnik, 2000; Cynthia, 2002; Berger & Brooks-Gunn, 200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 연구 역시, 미비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이봉주, 2005). 특히 아동학대 발생 요인의 하나로서 가족의 빈곤 또는 소득, 가족구조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빈곤 및 가족소득과 가족구조 등 가족배경이 학령 전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을 성별로 구분하여 이러한 가족배경의 영향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Elder, Nguyen, & Caspi, 1985; English, 1998; Conger et al, 1992; Cynthia, 2002). 먼저 빈곤의 영향을 밝힌 연구들은 빈곤 상황이 열악한 아동양육과 학대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Plotnik, 2000; Berger, 2004; 2005; Berger & Brooks-Gunn, 2005). 첫째, 저소득 가족의 부모는 부족한 경제적 자원을 아동에게 적합한 양육보다는 생계를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커 아동을 학대 및 방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Plotnik, 2000). 둘째,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양질의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빈곤한 가정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투자의 보상, 즉 미래 환수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쉬워, 결과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질의 양육보다는 학대나 방임이 나타나기 쉽다고 설명한다(Waldfoegel, 2000, Becker & Tomes, 1986). 셋째, 빈곤한 가정의 부모는 아동에 대한 특정한 개입을 통해 아동의 행동이나 선택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데, 빈곤한 가정의 부모들은 아동들에게 제공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적어 폭력과 같은 행동통제의 비재정적 방법을 사용하기 쉽다고 설명한다(Becker, 1991). 빈곤과 다른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을 지적하는 연구들도 있다(Elder, Nguyen, & Caspi, 1985; English, 1998; Conger et al, 1992). 빈곤과 낮은 소득지위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 쉽고,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좌절감은 부부갈등과 부자갈등을 유발시키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양육, 즉 체벌과 같은 신체적 학대 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 빈곤은 부모의 우울이나 약물중독, 사회적 고립 등의 위험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학대를 유발시키고 있음이 보고 되고 있다.

아동의 신체적 학대를 유발하는 또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 중의 하나는 가족구조이다(Cynthia, 2002). 먼저 한 부모 가구의 경우, 경제적인 수입원의 감소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핍할 가능성이 커, 경제적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한 부모 가족의 경우, 양부모 가족보다 아동 양육과 경제적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아동의 양육에 일관성을 잃기 쉽고, 아동의 신체적 학대의 유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절대적 양육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부적절한 양육을 제공하기 쉽다. 특히 그 한 부모 가족이 모자 가정일 경우, 이러한 상황은 더 심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한 부모가족이 된 원인이 이혼이나 별거인가, 사별인가에 따라 양육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한다.

### III.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는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원 자료(가구 및 개인조사)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가구와 개인조사 자료를 합한 후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1,476사례이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빈곤과 가족소득은 빈곤여부, 욕구소득비(연속변수), 범주화된 욕구소득비 등이고, 가족구조는 한 부모 여부와 한 부모가 된 원인으로 구분된다(<표 1> 참조).

<표 1> 변수의 정의와 기술 통계치<sup>1)</sup>

변수 (변수명)		변수정의	평균 (표준편차)
가구소득 (%)	빈곤 여부	욕구소득비 1미만	9.9
	욕구소득비	월평균소득/최저생계비	2.18
	욕구소득비 범주	월평균소득/최저생계비: $0 \leq \text{욕구소득비} < 1$	9.9
		$1 \leq \text{욕구소득비} < 2$	41.9
$2 \leq \text{욕구소득비} < 3$		31.6	
	욕구소득비 $\geq 3$	16.6	
가족구조	한 부모 여부 (%)	한 부모 여부 (양부모=0)	2.0
	한 부모 원인 (%)	사별 이혼 및 별거 (양부모=0)	.80 1.2
아동나이		아동의 나이	1.65 (1.61)
아동성별(%)		남성=1	54.0
기타폭력(%)		아동학대 외의 가정폭력 유무	7.2
아동성에 대한 선호		남아선호	31.2
		여아선호	21.9
지원자 수		아동 양육 지원자 및 기관 수	1.41 (.67)

\* 자료 :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사례 수: 1476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부모에 의해 행해진 신체적 학대 정도이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에서는 아동의 신체적 학대를 Straus(1979)가 개발하고, 연진영(1992)이 수정하여 사용한 신체적 학대 척도 12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각 문항별로 행해진 학대행위의 비율은 <표 2>와 같다.

1) 지면의 제약으로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는 표에서 생략하였다.

<표 2> 부모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유형

아동 신체학대 유형	비율(%)	아동 신체학대 유형	비율(%)
1. 손, 화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맞음	62.71	7. 밀쳐서 머리를 벽에 부딪침	.11
2. 얼굴, 머리, 뺨 등을 맞음	.90	8. 던진 물건으로 맞음	0.00
3. 꼬집히거나 할퀴임	.64	9. 팔, 다리가 묶임	.05
4. 발로 차이거나 깨물림	.05	10. 다락방, 목욕탕, 장롱 속에 갇힘	.05
5. 빗자루, 굵은 몽둥이로 맞음	.21	11. 칼이나 흉기로 위협 당함	.16
6. 책대로 맞음	0.00	12. 핀이나 뾰족한 도구 등으로 찔림	.27

## IV. 분석 결과

<표 3>과 <표 4>는 부모에 의해 행해진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수준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3>의 모형1은 빈곤 상황에 있는 가족일수록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모형2는 가족소득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인 연속변수로 측정된 욕구소득비가 낮을수록, 즉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높아짐을 보여준다. 모형3은 범주화된 욕구소득비의 영향을 보여주는데, 욕구소득비가 2에서 3 사이에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욕구소득비가 1미만인 가족은 아동학대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욕구소득비가 1에서 2 사이인 가족 역시, 아동학대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모형 4와 5는 가족구조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 부모 여부와 한 부모 원인 변수, 즉 가족구조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통계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가족배경이 학령 전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sup>2)</sup>

	1	2	3	4	5	6
가구소득						
빈곤여부	.405** (.207)					.036* (.207)
욕구소득비		-.120** (.048)				
욕구소득비			.556** (.226)			
0≤욕구소득<1			.279* (.114)			
1≤욕구소득<2			-.006 (.183)			
욕구소득비≥3						

2) 부와 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는 실제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면의 제약으로 표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1	2	3	4	5	6
가족구조 한부모 여부				-.524 (.493)		-.543 (.492)
한부모 원인 사별 이혼 및 별거					-.534 (.861) -.376 (.707)	
아동연령	.302*** (.039)	.311*** (.039)	.312*** (.040)	.305*** (.039)	.303*** (.039)	.339*** (.045)
아동성별	.117 (.118)	.112 (.118)	.121 (.118)	.108 (.118)	.109 (.118)	.120 (.118)
가정 내 다른 폭력						.099*** (.030)
지원자 수						-.183* (.102)
Adj. R <sup>2</sup>	.044	.045	.045	.042	.041	.050

\*p<.10, \*\*p<.05, \*\*\*p<.01, 사례 수 = 1476

모형 6은 빈곤 여부 변수, 가족구조 변수가 모두 포함된 모형이며, 더불어 가족 내 다른 폭력의 존재 변수와 아동양육 지원자 수 변수가 추가로 투입되었다. 분석결과 빈곤 변수는 가족구조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학대의 발생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였다. 그러나 가족구조는 아동학대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밖에 가정 내 존재하는 다른 폭력의 존재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 양육을 지원해줄 사람이나 기관의 수가 많을수록 아동학대가 적게 나타나 양육 지원 정도가 아동학대의 보호요인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표 3>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볼 때, 부모의 학력과 연령, 아동의 나이와 성별, 가족 내에 존재하는 다른 폭력 변수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가족의 빈곤이 학령 전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소득의 관점에서 볼 때,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 대한 소득의 영향은 빈곤층과 유사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욕구소득비 2 미만까지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증명되었고, 2 이상에서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가족소득이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은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나타나, 선형적 관계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표 4>는 아동의 성차에 따라 가족 배경이 학령 전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 1과 모형 2는 남성 아동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모형 모두 아동학대와 빈곤여부가 통계적 관련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가족구조 역시, 부모의 신체적 학대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부모가 남아를 선호할 경우, 남아에 대한 학대가 감소된 반면, 여아를 선호할 경우, 남아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모형 3과 모형 4는 여자 아동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데, 남자 아동만을 분석한 앞의 모형과 달리, 모형 3과 4 모두 빈곤이 여아의 신체적 학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변수나 부모와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빈곤은 여아의 신체적 학대의 유발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가족구조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4>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볼 때, 부모와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빈곤의 영향이 남아보다는 여아에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구조는 앞선 <표 3>에서와 같이 신체적 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4> 아동의 성에 따라 가족배경이 학력 전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sup>3)</sup>

	남아		여아	
	1	2	3	4
가구소득				
빈곤여부	.079 (.296)	.052 (.296)	.629** (.288)	.622* (.292)
한부모 여부		-.991 (.690)		-.358 (.723)
아동연령	.368*** (.054)	.369*** (.054)	.231*** (.058)	.237*** (.058)
남아선호		-.376** (.180)		.076 (.216)
여아선호		.408** (.228)		-.146 (.207)
Adj. R <sup>2</sup>	.054	.055	.044	.042

\*p<.10, \*\*p<.05, \*\*\*p<.01, 사례 수 = 798, 677

##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과 가족소득, 가족구조 등 가족배경이 부모의 학력 전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과 가족소득은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연령, 자녀 수, 그리고 가족 내 존재하는 다른 학대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신체적 학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 및 가족소득의 영향을 아동의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 그 영향이 여성 아동에 집중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자 및 지원기관의 수가 많을수록 아동학대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족배경 특히, 빈곤과 가족소득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는 본 연구의 이론적 예측이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

3) 부와 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면의 제약으로 표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는 것이다(English, 1998; Plotnik, 2000; Cynthia, 2002; Berger, 2004; 2005).

본 연구의 발견은 첫째, 서구의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검증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시도되지 못했던 학령 전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대한 가족배경 특히, 빈곤과 가족소득의 영향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빈곤가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지원 대책이 아동학대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이 신고 가정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둘째, 본 연구는 빈곤과 가족소득의 영향이 여성 아동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이 빈곤 상황에서 부모가 성에 따라 다른 양육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아동성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부모의 다른 양육 방식은 먼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우리의 문화적 특성을 아동의 보상 가능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서구의 투자이론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때, 부모가 남성 아동에 대한 투자회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차별적인 양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아동 학대 예방개입 과정에 함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빈곤 가정의 아동양육에 대한 개입에 있어 아동의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보호요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아동양육의 지원자 및 지원기관의 아동학대 예방 역할을 검증하였다. 이는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의 아동학대 예방에 사회적 양육지원이 아동보호 및 양질의 보육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지원 뿐만 아니라 양육지원서비스와 같은 현물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서구의 연구에서 밝혀진 가족구조의 영향이 명확히 검증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한 부모 여부와 한 부모가 된 원인에 대한 검증은 앞선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 부모가구의 절대적 사례 수가 적어 가족구조의 영향을 밝히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된 양부모 가족의 경우, 재혼가정(step-family)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결과에 편의를 가져왔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의 추가적 검증이 요구된다. 둘째, 아동학대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해 빈곤과 가족소득의 영향을 과대평가 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정보 제한으로 인해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한 것 역시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빈곤과 가족소득의 간접적 효과에 대해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선행연구들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경우, 아동학대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간접적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이 부분 역시, 후속연구를 통한 검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 〈 참고 문헌 〉

-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진영(1992). “아동학대 실태와 관련변인”, 가정문화연구, 제 9집, pp. 93-122.
- 이봉주(2005). “아동학대와 방임의 사회구조적 요인: 빈곤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아동학대 예방협회 2005년도 정기 학술세미나.
- Becker, G. S.(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ecker, G. S., & Tomes, N. (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S1-S39.
- Belsky, J. (1980). “Child maltreatment: An scological integration”, *American Psychologist*, 35(4), pp. 320-335.
- Berger, L. M.(2005). “Income, family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violence towar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29, 107-133.
- Berger, L. M. & Brooks-Gunn(2005). “Socioeconomic status, parenting knowledge and behaviors, and perceived maltreatment of young low-birth-weight children”, *Social Service review*, June 2005, pp. 237-267.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jR.,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Cynthia, C. T.(2002). Understanding child abuse and neglect. Boston: Allyn and Bacon.
- English, D.(1998). “The extent and consequences of child maltreatment”. *The Future of Children*, 8(1), 39-53.
- Knutson J. K.(1995).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ltreated children: Punitive risk factors and consequenc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401-431.
- Plotnik, R. D.(2000). Economic security for families with children. In P. J. Pecora, J. K. Whittaker, A. N. Maluccio, & R. P. Barth(Eds), *The child welfare challeng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pp. 95-127). NEW YORK: Aldine de Gruyter.
- Straus, M. A.(1979). “Measuring intra 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1(1), pp. 75-88.
- Waldfogel, J. (2000). What we know and don't know about the state of the child protective services system and about the links between poverty and child maltreatment. Remarks for Joint Center for Poverty Research Congressional Research Briefing on “Child Welfare and Child Protection: Current Research and Policy Implications.” Washington, D.C.